

2018년 미국 중간선거 동향

2018. 9.

주미대사관 입법관실

2018년 미국 중간선거 동향



■ 개 관

-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 상원(임기 6년) 100석 중 매 2년 마다 1/3이 교체되고, 연방 하원은 435석 전체(임기 2년)가 2년 마다 교체됨.
- 2018년 11월 6일 실시되는 제116대 연방의회 중간선거에는 상원 의원 100석 중 35석(미네소타 및 미시시피주 보궐선거 2석 포함)과 하원의원 435석 전체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며, 이와 별도로 주지사 36석에 대한 선거가 있을 예정임.
- 현재 미국 상원의 의석은 공화당 51석, 민주당 49석으로 이번 중간선거 대상은 35석으로서, 이 중 민주당 지역구는 26석이고, 공화당 지역구는 9석임. 따라서 민주당이 현재 의석수에서 2석을 더 확보할 경우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변경됨.
- 미국 하원의 의석은 공화당 236석, 민주당 193석, 공석 6석으로 218석을 확보하는 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.
-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며, 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.
-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약 100년간 21번의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은 단 세 차례만 승리한 바 있음.

■ 예비선거 진행 상황 등

1. 예비선거 현황

○ 지난 3월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각 당별 11월 중간선거 후보자를 뽑는 하원 예비선거(Primary)가 개시되어 9월까지 진행 중임.

○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은 여성후보, 진보 색채 및 反 트럼프 성향 후보가 선전하는 경향을 보임.

※ 뉴욕주에서 신인 Alexandria Ocasio Cortez(여성, 28세)가 현역 거물 Joseph Crowley(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는 하원의장 후보)에게 승리하였고, 디트로이트에서 팔레스타인 이민자 2세인 Rashida Tlaib(여성)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

○ 공화당은 反 트럼프 의원이 탈락하고 親 트럼프 의원이 약진하는 경향을 보임

※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Mark Sanford 후보 탈락(South Carolina)

2. 여론조사 추이 등

○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별 지지도 조사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.

기관	1/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Rasmussen	45	46	45	45	45	46	45
	37	40	40	41	41	40	41
Fox News	44	46	-	-	48	48	49
	38	41	-	-	39	40	38
Harvard-Harris	41	45	43	44	45	43	-
	36	34	34	37	36	36	-
Quinnipiac	53	49	48	47	50	51	51
	38	43	40	40	41	39	38

(위 민주당, 아래 공화)

- 미국 선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치후원금의 경우에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의원을 상당 부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.

■ 전 망

<상원>

- 상원은 선거대상인 35석 중 26석이 민주당 의석으로서, 이 중 2016년 대통령 선거시 10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비해 많은 득표를 얻은 지역임.
-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상원 의석 100석을 기준으로 공화당 48석 우세, 민주당 44석 우세, 경합 8석 정도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으며, 8개의 경합 주 선거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결정되나, 전반적으로는 공화당 우세로 전망

<하원>

- 하원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였던 역대 선거결과, 트럼프 대통령지지 기반인 저학력 백인층 인구비율의 감소, 미중 무역전쟁 등 관세정책에 불만을 품은 지지층 이탈, 반이민법 논란,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의 요인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.
- 일부 언론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, 트럼프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, 낮은 지지율 및 안정적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하원에서 공화당이 선전할 가능성도 제시
- ※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 주지사와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했던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

- 하원의 경우, 현재 약 15개 주 40여개 경합 선거구에서 부동산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선거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, 현재 전반적인 여론조사나 분위기는 민주당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■ 기 타

- 현재 본선에 진출한 한국계 출마자는 총 3명임.
 - Young Kim(공화당) : 캘리포니아 39선거구
 - Andy Kim(민주당) : 뉴저지 3선거구
 - Pearl Kim(공화당) : 펜실베이니아 5선거구